

#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또 하나의 역사가 되다

### 업적·철학이념 집대성... 4830여점 자료·다큐 제작 목포 삼학도 건립 15일 개관식... “국제적 명소 만들 것”

남북대화가 재개된 가운데 오는 15일 목포 삼학도에 건립되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김대중 평화센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등 김대중 관련 기관들이 있지만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대통령의 업적과 철학적 이념을 집대성한 곳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타 기념관은 인물위주로 개인 치적과 유품전시에 한정된 반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단순 패널리지가 아닌 70~80년대 역사적 주요사건

(김대중 5대 사건)을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영상으로 제작했다.

15일 개관식을 갖는 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2000년 6월15일은 1948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두 당국 대표가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기념관 건물 디자인도 특색 있다. 외형구조는 전시동과 컨벤션 등으로 구분하고 ‘평화의 나라,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5대양 6대주를 상징하고 있다. 넓은 바다를 형상화한 울림을 전면에 배치했는데 이는 평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유품 확보에도

내실을 기했다.

노벨평화상 기념메달, 학적부, 연설문, 육중서신, 생활소품 등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김대중 도서관에서 협조 받고 시민 소장자료를 기증받아 모두 4830여점을 확보했다.

또 이희호 여사로 부터 사저에 보관한 유품인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당시 입었던 턱시도와 한복을 직접 기증받기도 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해외인사 및 주한 외교사절, 전국의 정·관계 주요인사, 김대중 기념 사업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개관식에 맞추어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13일부터 16일까지 목포와 신안 해역에서 ‘다도해 국제요트대회’가 열리고, 14일부터 16일까지 ‘제1회 6·

15 공동선언 국민화합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도 개최된다.

또 ‘평화의 사도, 그 찬란한 귀향’이라는 주제로 목포시립예술단이 합동창작 공연을 펼친다. 대통령의 일대기, 노벨평화상 수상기쁨, 기념관 개관을 맞아 귀향 등을 엮어 음악, 무용, 합창, 국악, 시극, 영상을 한데 어울려 아름답고 웅장한 비크로마 드라마(Visual Cross Over Drama)형식으로 공연한다.

정종득 시장은 “기념관을 구상하면서 대통령의 평화·용서·배려·타협 등의 철학적 이념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었다”며 “대통령의 흔이 담긴 기념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관내 출신 대학생 대상 담양군 인턴사원 25명 모집

담양군이 극심한 청년실업난에 대비, 담양 관내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군에서 일할 인턴직원 25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담양군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접수도 가

능하다.

군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학력, 자격증, 어학점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인턴사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선발된 인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군청 각 실과단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공공행정 분야 실무 지식 습득과 대민행정 체험 등 다양한 군정 업무 경험을 하게 된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겨울방학 중 행정인턴제를 통해 26명을 채용, 11개 실과와 10개 읍면에 배치해 지역 젊은이들에게 공공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 영암군 민선5기 공약사업 부진

### 가축시장·도서관 포기... 바둑테마파크 임기내 어려워 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영암사랑 상품권 등은 양호

영암군이 민선5기 임기를 1년 앞두고 상당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영암 가축시장 개설사업, 어린이·다문화 도서관 건립 사업 등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수유지컬 영암아리랑 조성 사업을 비롯한 바둑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10% 미만의 저조한 이행 실적을 보여 사실상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10월 영암군에 따르면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12개 분야 총 56건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 복원 사업’ 등 8개 분야 12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영암사랑 상품권 유통 확대 사업’ 등 7개 분야 14건의 사업은 정상 진도율을 넘는 양호한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삼호 종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8개 분야 21건의 사업은 사업비 확보 부족 등으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진도율을 보였다.

또 행안부 심사에서 탈락해 실적이 저조한 ‘영산강 강변 그린웨이 조성사업’,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착수를 못한 ‘삼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시설규모 축소 등 조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4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어 전향적인 예산낭비 사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일부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 재검토 후 민자유치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성수기자 dss@

Songs of Ocean, Songs of Joy.  
2013 여수 세계 합창제  
2013 Yeosu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 Festival  
2013. 6. 11 ~ 17

여수에서 울려 퍼지는 전세계 아름다운 하모니의 향연

**총 상금 1억 4천 5백만원**  
그랑프리(전체 1개 팀) 상금 5천만원, 상패/상장  
금상(각 부분 1위팀, 총 6개 팀) 상금 1천만원, 상패/상장  
은상(각 부분 2위팀, 총 7개 팀) 상금 5백만원, 상패/상장  
동상(각 부분 3위팀, 총 14개 팀) 상패/상장  
지휘자상(1명) 상금 1천만원(그랑프리 상금에 포함)

**경연부문**  
어린이·청소년 합창  
민속 & 흑인영가, 가스펠 합창  
동성 합창(남성 & 여성합창)  
혼성 합창  
팝 & 재즈(현대 아카펠라 포함)  
종교음악 합창  
국내 합창

문의\_ 061.808.7051 www.yicc2013.com  
주소\_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술마루  
주최\_ (사)한국음악협회 여수지부  
주관\_ 2013 여수 세계 합창제 추진위원회  
후원\_ 여수시 GS칼텍스 여수국가산업단지 THE MVL



**“칼슘·비타민 가득 산딸기 드세요”**  
새콤달콤한 특유의 향과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산딸기를 지난 8일 장성군의 한 농가에서 한창 수확하고 있다. 칼슘을 비롯한 비타민 C와 각종 무기성분이 풍부해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딸기는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재배농가가 계속 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 “직접 키운 고구마, 이웃과 나누니 더 큰 보람”

### 해남군 화산면, 복지단체·불우이웃에 100박스 전달

황토고구마로 유명한 해남군 화산면의 아름다운 고구마 나눔행사가 올해도 이어졌다.

해남 화산면사무소 직원들은 최근 자신들이 1000여㎡에 고구마 순을 심어 직접 재배한 황토고구마를 복지단체 및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직원들은 지난해 300여㎡에서 수확한 황토고구마 100여 박스를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요양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전달한 바 있다.

올해는 나눔행사의 취지를 알게 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줬으며, 비닐 씌우기 작업, 고구마 순 등도 무상으로 독지가들이 지원했다.

화산면은 앞으로 고구마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9월경 수확해 복지단체 및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화산면 박남재 면장은 “직원들이 직접 심고 수확한 고구마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여 보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된 만큼 매년 지속적으로 나눔행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목포대, 性 평등기금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목포대(총장 고석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10일 “2013년 목포시 성(性) 평등기금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목포시 성 평등기금 지원사업은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지원사업으로, 이를 통해 목포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화성인=지구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성인=지구인? 프로젝트’는 여성이 취업 후 결혼, 출산, 육아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에 따라 이에 따른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남·여 각각 25명 선착순 모집하며, 목포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로 전화접수, 이메일,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8월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